

2022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 자기주도 학습자료 1회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⑤	2	②	3	④	4	④	5	②
6	③	7	⑤	8	⑤	9	②	10	②
11	④	12	①	13	①	14	⑤	15	①
16	⑤	17	①	18	①	19	⑤	20	③
21	⑤	22	①	23	②	24	⑤	25	③
26	③	27	⑤	28	④	29	③	30	⑤
31	①	32	③	33	④	34	②	35	⑤
36	①	37	③	38	④	39	④	40	②
41	③	42	⑤	43	⑤	44	④	45	④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의 구성과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자율 동아리를 소개하면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앞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시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 동아리 가입에 관심이 생긴 친구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오토마타'의 의미를 밝히면서 청중에게 해당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자율 동아리를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이 동아리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이 동아리에 가입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발표 도중 '두 팔을 교차해 가위표를 만'들거나 '엄지를 치켜'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에게 '어떤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요?'와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의 자료 활용 방식을 파악한다.

㉠은 청중이 초등학교 때 만들 만한 것으로, 청중의 과거 경험을 환기시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활용되었다. ㉡은 작년 '오토마타 경진대회'에 나온 작품들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동아리에서 목표로 하는 작품의 수준을 알려주기 위해 활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은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의 경우 동아리 활동의 주의 사항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은 이 동아리 활동에서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④ ㉠은 이 동아리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아리 활동의 준비물이 아니다. ⑤ ㉡을 보여주며 '크랭크, 기어, 캠' 같은 부품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과정이나 반응을 파악한다.

'학생 1'과 '학생 3'은 이 동아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두 학생 모두 발표자가 말한 내용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만, 근거가 함께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와 관련 지어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은 이 정보가 자신의 동아리 가입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② '학생 2'는 '오토마타 동아리에 들어오면 코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발표자의 말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동아리의 장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⑤ '학생 2'는 자

신에게 오토마타 동아리보다 더 도움이 되는 동아리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 3'은 이 동아리의 활동이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이 입양되는 비율이 채 30%가 되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이미 버려졌던 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인수제 실시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최 대표'가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반려동물 인수제 실시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의 '정부 위탁을 통해 불법 유기를 줄이자는 것이군요.', '입양률이 낮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인수제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군요.'라는 내용을 통해 '진행자'가 대담자의 발언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렇다면 반려동물 인수제의 위탁 절차와 위탁된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불법 유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을 통해 대담자의 발언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② '김 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정부에 위탁하는 제도가 반려동물 인수제라고 소개하고,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③ '김 과장'은 반려동물 인수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을 활성화한다면 반려동물 인수제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최 대표'는 반려동물 인수제는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보호소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법적 처벌 강화 등의 불법 유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5. [출제의도] 대담 참여자의 공통된 의견을 파악한다.

'김 과장'은 동물 보호소의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양육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활성화한다면 반려동물 인수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 대표'는 반려동물 입양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 인수제를 통해 불법 유기 동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선부른 도입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김 과장'과 '최 대표' 모두 반려동물 입양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 인수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김 과장'은 반려동물 인수제가 시행되면 불법 유기 동물이 줄어들 것, '최 대표'는 합법적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③ '최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졌던 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인수제를 시행해 정부가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입양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④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를 위한 절차가 강화되면 반려동물 인수제가 정착된다는 주장은 '김 과장', '최 대표' 모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⑤ '김 과장'은 정부가 양육 비용을 지원하면 입양률이 높아져 반려동물 인수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통해 입양한 사람에게 양육 비용을 지원하면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정부의 양육 비용 지원만으로는 입양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입양률이 크게 늘어났다고 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과 초고의 내용을 비교한다.

제시된 작문 계획 중 '반려동물 입양의 자격 조건'은 (가)와 (나) 모두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둘째 문단의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보호소에 위탁하면 정부에서 입양처를 연결해주는 반려동물 인수제'와 첫째 문단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불법 유기되는 동물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둘째 문단의 '반려동물 인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김 과장'의 입장을, 셋째 문단의 '반려동물 인수제의 시행보다는 먼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에서 '최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둘째 문단의 '한 설문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이유에는 장기간 부채(25.9%), 경제적 문제(11.6%) 등이 있다고 나타났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초고 상단의 시각 자료에서 구조된 유기 동물이 2015년 82,082마리에서 2016년 89,732마리로 증가한 사실과, 유기 동물 보호 센터 운영 비용이 2015년 97억 5천만 원에서 2016년 114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유기 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잘못된 표현을 고쳐 쓴다.

㉢의 주어는 '동물 보호소의 많은 동물들'이다. '안락사'는 동물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므로, 주어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안락사하고'는 '안락사시키고'가 아니라 '안락사되고'나 '안락사 당하고'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학생의 초고는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초고에서는 '반려동물 인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채 반려동물 인수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므로 초고의 제목으로 '탄탄대로, 반려동물 인수제는 적절하지 않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뜨거운 논란, 반려동물 인수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급증하다'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의미가 중복되어 '갑작스럽게'를 삭제해야 한다. ③ 둘째 문단에서는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이유와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를 언급하는 문장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어 삭제해야 한다. ④ 이 문장에는 '법적, 양심적 면죄부를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빠져 있다. 그러므로 ㉢에 '반려동물 주인들에게'라는 부사어를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을 이해한다.

'1인 방송'에 대한 학생의 초고에는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1인 방송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1인 방송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1인 방송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1인 방송이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1인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보기>의 '조사 자료'는 1인 방송 콘텐츠 조회 수 증가에 따라 제작자의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그리고 '인터뷰'는 자국적인 콘텐츠로 방송했을 때 조회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뷰이다. 따라서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은 '1인 방송에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는 이유가 조회 수가 제작자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이다.

[오답풀이] ① '1인 방송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은 '인터뷰'와는 관련이 되지 않지만 '조사 자료'와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③ 두 자료 모두 자극적 콘텐츠를 즐기는 청소년의 급증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④ 두 자료 모두 콘텐츠의 다양성 추구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⑤ '1인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1인 방송을 조회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내용은 '인터뷰'와는 관련이 되지 않지만 '조사 자료'와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10. [출제의도] 교쳐 쓰기의 적절성을 이해한다.

㉠은 1인 방송 진행자가 청소년의 장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인 방송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된 이유를 설명하는 2문단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4문단은 1인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문단이다. 따라서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을 4문단의 마지막 문장 뒤로 옮겨야 한다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시'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이라는 의미를 지닌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어휘이므로 ㉠에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이라는 의미를 지닌 '제공'으로 교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은 앞의 '배경으로는'을 고려할 경우 '된 점이다'가 아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로 교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등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반면 '또한'은 '거기에다 더'라는 의미를 지닌 접속 부사이다. 문맥상 ㉢의 앞뒤 문장은 모두 1인 방송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접속 표현을 '또한'으로 교쳐야 한다. ⑤ ㉣은 피동 표현인 '-되다'와 '-어지다'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사용된 것이므로 '노출될'의 형태로 교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단모음과 이중 모음에 대해 이해한다.

'과'는 이중 모음으로 반모음 [w]가 단모음 'ㅏ' 앞에서 결합한 소리이다.

[오답풀이] ①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소리이다. 이중 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한다. ② '히'는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③ '키'의 발음은 '이'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i] 뒤에서 '키'가 결합한 것이다. ⑤ 반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이고 이중 모음의 발음은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것이다.

12. [출제의도] 표준어 규정에 따른 발음을 이해한다.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기'와 '키'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키'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이 소리는 '게'의 발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 [차페]이다. '키'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이'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이 소리는 '예, 피, 키, 켄, 카, 케, 켄, 제, 제, 피.'의 발음 중 없으므로 ㉡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이해한다.

"나는 그 책도 샀다."라는 문장의 구문 도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의 짜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문장은 주어 '나는', 관형어 '그', 목적어 '책도', 서술어 '샀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러므로 중간에 내

리그는 세로줄 왼쪽에는 주성분인 주어(나는), 목적어(책도), 서술어(샀다)를, 오른쪽에는 부속 성분인 관형어(그)를 배치해야 한다. 이때 서로 다른 두 성분 사이에는 가로로 외줄을 그어야 하고, 주어인 '나는'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할 때에는 가로로 쌍줄을 그어야 한다. 또한 '는', '도'와 같은 조사는 앞말과의 사이에 짧은 세로줄을 그어 표시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국어사건의 정보를 탐구한다.

국어사전에 제시된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없다'는 '없어, 없으니, 없는'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있어, 있으니, 있는'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간 '없-'과 '있-'의 형태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없다'는 [엄:파]와 같이 장음 부호(:)를 표시하여 어간이 긴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② '있다'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와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보아 '있다'는 두 가지의 뜻을 제시한 다의어이다. ③ '있다(1)'은 '[...에]'와 같이 주어 외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④ '없다'는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있다(2)'는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이로 보아 품사가 서로 같고, 의미상 반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높임법의 유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문장들에서 ㄱ은 부사격 조사 '께'와 서술어 '드리다'를 활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ㄴ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서술어 '계시다'를 활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ㄷ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서술어 '가시다'를 활용해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서술어 '모시다'를 활용해서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객체 높임법만 사용된 문장은 ㄱ, 주체 높임법만 사용된 문장은 ㄴ, 객체 높임법과 주체 높임법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ㄷ임을 알 수 있다.

[16~20] (과학) Raymond A. Serway 외, 『일반물리학』

이 글은 핵분열과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핵분열은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이고, 핵융합은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되는 것으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핵분열과 핵융합의 과정에서 줄어드는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 에너지를 핵분열 발전과 핵융합 발전에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2문단에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드는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에너지는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인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질량수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② 8문단에 양(+)의 전하를 띤 원자핵은 음(-)의 전하를 띤 전자와 전기적 인력에 의해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③ 2문단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④ 2문단에 '질량 - 에

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는 질량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

17.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핵분열 발전을 할 때는 우라늄 - 235 원자핵에 전자가 아닌 중성자를 흡수시켜 핵분열을 일으킨다.

[오답풀이] ② 중성자가 느리게 움직일 때 원자핵에 흡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중성자의 속도를 조절한다. ③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하여 급격한 연쇄 반응을 막는다. ④ 핵분열은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라늄 -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 우라늄 - 235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로 나뉘게 된다. ⑤ 우라늄 - 235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다른 원자핵에 흡수될 확률이 높아져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관 지어 이해한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이고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원자핵들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거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고 안정된 상태가 된다. <보기>에서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을 통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이 된다고 했고, 헬륨 - 4 원자핵은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낮으므로 헬륨 - 4 원자핵이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오답풀이] ② <보기>의 그림을 보면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의 수가 1개로 동일하다. 하지만 삼중수소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높으므로 삼중수소 원자핵이 중수소 원자핵보다 더 안정된 상태이다. ③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이다. 철 원자핵의 질량수는 56이므로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56을 곱한 값과 같다. ④ <보기>에서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했으므로 우라늄 - 235 원자핵의 핵분열로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철 원자핵보다 작아야 한다.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9MeV 이하이므로 우라늄 - 235 원자핵의 핵분열로 생성된 원자핵들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9MeV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우라늄 - 235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으므로 철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이 우라늄 - 235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 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고 물리적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태양과 달리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사용한다.

[오답풀이] ① ㉡는 여러 핵융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헬륨 - 4 원자핵이 생성된다. 따라서 헬륨 - 4 원자핵의 개수는 늘어난다. ②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사용한다. ③ ㉣에서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 4 원자핵이 된다. 이와 달리 ㉤에서는 두 개의 헬륨 - 3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 4 원자핵이 된다. ④ ㉠과 ㉢는 모두 핵융합이고 핵융합은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드는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2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의 이유를 추론한다.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 가까이 다가갈수록 척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척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마 온도를 1억℃ 이상으로 높여 원자핵을 고속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원자핵이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활용한다. ② 자기장을 발생시켜 플라스마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플라스마를 1억℃ 이상으로 가열한 후의 과정이다. ④ 플라스마를 1억℃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원자핵을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다. ⑤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아닌 척력이 존재한다.

[21~25] (사회) 남준형 외, 「국제 무역론」

최근 과도한 관세 부과로 인한 국제 무역 분쟁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글이다. 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는 반면,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와 달리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에 대한 공급량은 감소하고,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러한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할 때,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이득에 해당하는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의 이득에 해당하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생산자 잉여는 늘고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 하지만 늘어난 생산자 잉여보다 줄어든 소비자 잉여가 더 크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의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줄어들게 되므로, 관세 부과는 자국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관세 정책이 장기화되었을 때에는,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을 원료로 하는 국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국내 소비를 감소시키고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 국제 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2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이 글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세 정책이 국내 경기 및 국제 무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리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상반된 두 입장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상황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결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관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관세 정책에 대한 학설이 대두된 배경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 [출제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

나는 지점에서 재화의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6문단에서 밀가루의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1문단과 7문단에서 관세가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7문단에서 관세는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추론한다.

5문단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데,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관세 부과 전에 비해 작아진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가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이유는,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과 같은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③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④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⑤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다.

제시된 그래프는 P국의 바나나 국내 수요 및 국내 공급, 관세 부과 전 바나나의 가격과 관세 부과 후 바나나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4문단에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P국의 국내 수요량인 250톤에서 P국의 국내 공급량인 50톤을 뺀 200톤이 된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 후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P국의 국내 수요량 200톤에서 P국의 국내 공급량 100톤을 뺀 100톤이 된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100톤이 줄어들게 된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P국의 바나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P국 수요량 250톤에서 P국의 국내 공급량 50톤을 뺀 200톤이 된다. ③ 관세를 부과하기 전 P국의 바나나 국내 가격이 톤당 500만 원이고, 관세를 부과한 후 P국의 바나나 국내 가격이 톤당 7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P국에서 부과한 관세는 톤당 20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④ 관세를 부과하기 전 P국의 바나나 국내 공급량은 50톤이고 관세를 부과한 후 P국의 바나나 국내 공급량은 100톤이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 결과 P국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관세와 수입 할당제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보호무역 정책에 해당한다. 관세와 수입 할당제 정책은 모두 국내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므로 관세는 수입 할당제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5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A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수입 할당제는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 무역 상태에서 수입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1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와 수입 할당제 모두 보호무역 정책임을 알 수 있다. 7문단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보기>에서 수입 할당제가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와 B 모두 국제 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6~30] (인문사회복합) 김진우, 「언어와 뇌」

실어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최초의 결합주의 모형은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이다. 이후 리시트하임은 베르니케 모형에 개념 중심부를 추가하여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은 실제로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외되어 있고,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뇌의 언어 중추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케쉬윈드는 '베르니케 - 케쉬윈드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는 리시트하임의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는 대신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다. 그의 모형에서 베르니케 영역은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자,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며, 운동 영역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각회는 시각 형태의 정보를 청각 형태로,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의 정보로 전환하는 곳이다. 이러한 '베르니케 - 케쉬윈드' 모형은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된다.

26.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8문단을 보면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되는 이론은 '베르니케 모형'이 아니라 '베르니케 - 케쉬윈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실어증이란 후천적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베르니케 모형'에서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의 두 언어 중추를, '리시트하임 모형'에서는 개념 중심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의 세 언어 중추를, '베르니케 - 케쉬윈드 모형'에서는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

동 영역, 각회의 네 언어 중추를 설정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그는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3문단에서는 '리시트하임 모형'의 베르니케 영역을 '일종의 머릿속 사전으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로 설명하고 있고, 5문단에서는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의 베르니케 영역을 '소리의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 베르니케 영역에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리시트하임 모형'에서는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②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은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곳으로 언어 중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리시트하임 모형'은 듣기와 말하기 과정에 대한 설명만 가능할 뿐, 읽기와 쓰기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에 해당한다. ④ 4문단을 보면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 7문단을 보면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에서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영역 → 베르니케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본 청각 영역은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곳이므로, 두 모형 모두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볼 수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상 논리적 관계를 추론한다.

3문단의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개념 중심부에서 형성된 의미가 베르니케 영역으로 직접 송부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말하기 과정이 '개념 중심부 → 브로카 영역 → 베르니케 영역 → 브로카 영역'과 같이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까닭은,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브로카 영역은 개념 중심부에서 형성된 의미를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정보가 송부되는 것은 듣기 과정에 해당한다. ②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의 정보는 일방향으로 흐른다. ③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할 수 있다. ⑤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지만 이것이 복잡한 절차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만일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직접 정보가 송부될 수 있다면 브로카 영역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다.

7문단의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어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쓰기 과정에서 (다)의 베르니케 영역은 각회에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5문단을 보면, 베르니케 영역은 말하기와 쓰기 과정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 ② 6문단을 보면, 각회는 쓰기 과정에서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하여 베

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 ④ 6문단을 보면, 브로카 영역은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이외에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 ⑤ 6문단을 보면, 운동 영역은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의 실어증 환자 증상을 보면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시트하임과 게쉬윈드 모두 브로카 영역에서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므로, <보기>의 환자에 대해 A, B 모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는 베르니케 영역에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하는 증상과는 관련이 없다. ② A, B 모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할 것이다. ③ B는 베르니케 영역이 단어가 소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곳이자,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④ A는 개념 중심부에서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31 ~ 34] (교전 소설) 작가 미상, 「토공전」

이 소설은 널리 알려진 '토기전'을 한문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송사 설화의 모티프를 빌려, 새로운 이야기로 후반부를 구성한 '토공전'이다. 후반부의 중심 내용은 토기를 놓친 것을 안 용왕이 옥황상제에게 글을 올려 토기를 다시 수부 즉, 용궁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이에 옥황상제는 토기와 용왕을 불러들여 각자의 진술을 들은 뒤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판소리로 소설로 널리 알려진 '토기전'의 새로운 결말을 보여주는 '토공전'은, '토기전'의 주제가 다양함을 보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문 소설이 한문 소설로 개작되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알려준다.

31. [출제의도]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

'출연히 한 때의 ~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더니', '또 우레 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더니'에서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토끼는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라고 짐작하고 있다. 토끼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를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토끼가 하나나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깨어나 머리를 들고 보니 천상의 백옥경이었다.'에서 백옥경에 도착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영문을 몰라 섬돌 아래에 기고 있다'는 부분에서 자신이 잡혀 온 이유를 알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에서 자신의 말씀씨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고,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해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에서는 자신의 말씀씨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에서 토끼가 만수산에서 용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에서 토끼가 느끼고 있는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에서 토끼는 용궁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진술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A]에서 용왕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청이나 제안을 스스로 문제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B]에서 용왕의 비위를 거슬렀기 때문에 삶을 구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토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옥황에게 '있드려 요컨대 살피주소서'라고 요청하지만 그 제안이나 요청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사해의 우두머리로서 용왕이, 나라의 신을 섬기며 백성을 혼유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 온 자신의 삶을 요약하여 제시하며 진술을 시작하고 있다. [B]에서 만수산에서 태어난 토끼는 출세를 구하지 않고 백이와 도잠처럼 자신이 삶을 살아왔음을 요약하여 제시하며 진술을 시작하고 있다.

② [A]의 '몸의 위태로움이 바늘 방식에 않은 듯하고'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용왕이 고난에 처했음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결인 생선이 줄에 꿰인 듯하고 전장에서 호령하니 뜨거운 불바람이 부는 듯하니'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토끼가 고난에 처했음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A]의 '오늘 이렇게 다시 와 뵈오니 굵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온갖 병이 다 나아 고목에 꽃이 핀 듯합니다'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용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밟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디다'에서 토끼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걱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A]의 '가없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에서, [B]의 '있드려 비옵건대 살피주소서'에서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며 진술을 마무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냥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 일'이라는 옥황의 말은 판결에 대한 대제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옥황은 결국 토끼의 편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옥황이 판결을 망설이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송사 설화 모티프는 갈등을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이야기를 말한다. 용왕과 토끼가 옥황 아래에서 재판 받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송사 설화의 모티프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용왕과 토끼가 옥황 앞에서 두툼을 꿸고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두 인물이 옥황 앞에서 대등한 처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을 하기를 바라는 일랑노의 말에 따라 옥황은 토끼를 지지하는 판결을 한다. 이를 통해 일랑노가 토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는데, 강자보다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인식은 토끼가 진술에서 밝힌 내용을 받아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토끼 역시 죽음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옥황의 판결에서, 용왕과 토끼가 모두 동일한 생명이란 생각하며 신분이 낮은 이의 생명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C]에서 용왕은 직혼공에게 토끼가 만수산에 가기 전에 포획해 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뇌공에 의해 토끼가 순식간에 만수산으로 가게 되면서 용왕의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 '하늘이 망해놓은 화'라는 용왕의 말은, 이것이 하늘의 명에 따라 일어난 일임을 드러내는 데,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C]에서 직혼공은 용왕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말을 할 뿐이다. 앞서 일어난 사건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③ [C]에서 용왕은 옥황의 작용으로 토끼를 놓치고 탄식을 하고 있다. 용왕과 옥황의 지위는 천명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므로 통곡하고 돌아가는 이후 내용이 용왕과 옥황 간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④ [C]에서 토끼는 뇌공에 의해 만수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공간적 배경의 사실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⑤

[C]에서 용양은 적혼공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따르려 했으나 뇌공에 의해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

[35~39] (시가 복합) (가)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나) 작자 미상, 「초부가」/(다) 김소월, 「길」

(가)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한국 서정 시가의 전통 계승과 특질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다.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에 기반으로 한 일정한 규범과 가치를 문학의 전통이라고 한다. 한국의 서정 시가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측면에서 3음보나 4음보의 규칙적인 음보율을, 내용적 측면에서 한의 정서, 해학과 풍자, 자연 친화, 이상향의 추구 등을 전통으로 계승하면서 이를 수용하거나 변용, 창조하고 있다.

(나) 작자 미상, 「초부가」
「초부가」는 영남, 강원 등의 산간에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할 때 불렀던 민요이다. 이 노래에는 가난하고 고달픈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과 외로움, 신세 한탄 등이 대조적 상황 제시와 4음보의 율격으로 잘 드러나 있다. 시적 화자와 대조를 이루는 상황 제시, 감정이 이입되거나 시적 정서와 분위기를 환기하는 소재의 사용, 열거와 대구에 의한 내용의 확장 등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화자의 기구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다) 김소월, 「길」
「길」은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비애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정처 없이 유랑했던 우리 민족의 슬픈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통적 율격인 3음보를 새롭게 변용하여 정처를 잃고 떠도는 나그네의 비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오체와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방향성을 상실한 '길'이라는 공간의 설정, 감정이입의 소재 사용 등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고 길 위를 유랑하는 화자의 절망과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갈림길의 한복판에서 방향을 상실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 수탈당한 우리 민족의 비애와 절망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5. [출제의도] 한국문학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에서 한국의 서정 시가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서정 시가의 전통인 3음보 또는 4음보의 전통적 율격의 사용, 한의 정서, 해학과 풍자, 자연 친화, 이상향 추구 등과 관련지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의 '나무하러 가자'는 고달픈 삶속에서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 하는 나무꾼의 한숨이 묻어나는 표현이다. (다)의 '산으로 올라갈까'는 정처를 잃은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오라는 곳이 없는 화자의 비애가 잘 드러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한국 서정 시가의 전통인 이상향의 추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의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고'는 '세상 인간/같지 않아/이놈 팔자/무슨 일고'와 같이 4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이 잘 드러난다. ② (나)의 '지게 목발'은 지게다리를 뜻하는 말로, 화자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야 하는 나무꾼임을 드러낸다. ③ (나)의 '사자 하니 고생이라'는 가난하고 힘들게 나무를 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으므로, 고달픈 삶에 대한 화자의 한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④ (다)의 '어제도/하로밤/나그네 집'이라는 3음보의 율격을 '어제도 하로밤/나그네 집'과 같이 두 개의 행으로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서정 시가의 전통을 새롭게 변용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나)의 '저 기럭야'와 (다)의 '어보소'에서 화자가 말

을 건네는 어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와 (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여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은 '너도 또한 임을 잃고 임 찾아서 가는 길가'라는 말을 통해 화자가 임을 잃고 외로워하는 심정이 의탁되어 있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 화자는 공중에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는 것처럼 잘 가는 ㉠을 보면서 '공중에 길 있어서 잘 가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는 ㉡과 달리 화자가 열심과 복판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을 종합했을 때, ㉠은 ㉢과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시상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짜이 있는 물건을 열거하며 화자의 예상감을 드러낸 부분은 '버선 짝', '토시 짝', '털뭉신' 등이 나타나 있는 [B]만 해당한다. 따라서 [A]와 [C]에서는 화자의 신세에 대한 한탄만 나타날 뿐, 짜이 있는 물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A]~[C]에서 모두 짜이 있는 물건을 열거하며 화자의 예상감을 표현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지게 목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달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고 넓은 집에 살면서 만 석의 녹봉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괴로움이 토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B]에서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남의 집도 못 면하고', '버선 짝도 짝이 있고', '토시 짝도 짝이 있고'와 같이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기구한 자신의 신세를 벗어날 기약이 없지만 그래도 나뭇짐을 지고 산을 내려가야 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④ [A], [C]에 '이허후후 에헤', '이허후후'와 같은 한숨 소리를 통해 고된 노동을 하는 화자의 심정이 표현되고 있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다)의 작품이 일제 강점기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가 '길'과 연결된 다양한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는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열심과 복판'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되돌아가고 싶은 원질 또는 화자의 갈등을 야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그네 집'은 길 위에서 방황하는 화자가 '어제도' 머물렀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목적지를 잃고 지속적으로 유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들'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고 떠도는 화자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슬픈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정주 객산'은 화자의 고향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화자는 어떤 곳도 자신에게 오라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자의 슬픔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⑤ '갈린 길'은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자의 모습은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0~42] (현대소설) 김연수, 「리기다소나무 숲에 갔다가」

'나는 삼촌과 함께 덕유산 일대의 리기다소나무 숲으로 멧돼지 사냥을 가게 된다. 그해 5월 대학생이 집회 도중 분신자살한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자원 입대를 신청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나'는 인간이 왜 목숨을 잃게 될 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또한 카페 윤 마담과 사랑을 이

루지 못하고 자살 소동까지 벌였던 삼촌이 사랑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 만큼의 용기는 없었다고 생각하면 서도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했는지, 자살 소동을 벌인 것이 오기가 아닌지 궁금해 한다. '나'와 삼촌의 사냥에 동행한 도라꾸 아저씨는 솜씨 좋은 포수였지만, 어느 날 '총을 쏘어버린' 인물이다. 리기다소나무 숲에서 멧돼지를 만난 '나'는 방아쇠를 당길 뻔했지만 겨냥만 한 채 엄청난 인내심으로 쓰지 않는다. 삼촌은 멧돼지를 쫓아가 총구를 겨눴지만 멧돼지의 눈을 보고 옛 애인이 떠올라 끝내 총을 쏘지 못해 달르지는 멧돼지에 몸을 만쳐 부상을 입는다. 결국 도라꾸 아저씨는 삼촌의 총을 주워 멧돼지에게 위협 사격을 가하여 쫓아낸다. 인용된 지문은 이 소설의 결말 부분으로 부상당한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라꾸 아저씨와 '나'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도라꾸 아저씨의 과거 멧돼지 사냥 경험의 전달되며, 이를 통해 리기다소나무 숲에서 벌어진 사냥에서 도라꾸 아저씨가 멧돼지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밝혀진다. 그는 과거의 멧돼지 사냥 경험을 통해 척박한 환경에서 잘 견디지만 목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리기다소나무뿐만 아니라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으로 여겨져 퇴치 대상이 되곤 하는 멧돼지 역시 숭탄것으로서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며, 생명이 이별이나 사랑,功名심 등 어떠한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한다.

삼촌은 열건 호식이 자신을 닮았다는 점에서 '영물'이라 부른 것이 아니다. 열건 호식이 어미 멧돼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새끼 멧돼지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영물'이라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감정 정리를 하느라 삼촌의 만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므로'에서 앞에서 삼촌의 만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찌네 수면까지 어찌네 정정거리던'에서 삼촌이 한 이야기의 내용이 사랑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③ '불질 잘한다고 알려지지만~ 영웅 되고 참 재미나지.'와 '마을에서 영웅 대접 받고' 등에서 도라꾸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냥꾼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전 줄거리를 보면 도라꾸 아저씨가 부상당한 삼촌을 업고 숲길을 걷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우리는 리기다소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라꾸 아저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라는 내용을 종합할 때, 도라꾸 아저씨가 부상당한 삼촌을 업고 하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새끼를 잃은 어미 멧돼지의 눈을 보고 난 후 사냥을 접은 도라꾸 아저씨가 자신이 삼촌을 좋아하는 이유로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서 총 못' 쓴 것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삼촌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 [출제의도] 대화의 양상을 통해 인물을 이해한다.

㉠을 통해 '나'는 새끼 멧돼지의 생명을 도구 삼아 어미 멧돼지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멧돼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도라꾸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통해 과거의 멧돼지 사냥에서 좌측인 것이 멧돼지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도라꾸 아저씨의 말을 '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 놀라움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도라꾸 아저씨는 '나'의 질문을 가로막고 있지 않다. ④ ㉢에서 '탄소리' 앞에 있는 '또'의 경우 아저씨가 탄소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냉소적 태도가 약화된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⑤ '의구심'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에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은 ㉡에 담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무산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의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도라꾸 아저씨가 새끼 멧돼지를 잃고 생의 의지를 상실한 어미 멧돼지와 시신을 마주침으로써 자연을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며,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생명으로서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남을 설명하고 있다. 새끼의 생명을 수단으로 어미 멧돼지의 생명을 빼앗는 사냥법을 '암수'라고 한 것은 삼촌이 아니라 도라꾸 아저씨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새끼 멧돼지를 보이는 족족 썩 죽임으로써 어미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도라꾸 아저씨가 죽은 새끼들을 찾아 온 어미 멧돼지의 텅 빈 눈을 보고 한참을 쓰지 못했다고 말한 데서, 어미 멧돼지와 시신을 마주한 것이 인식이 변화된 계기임을 알 수 있다. ② 도라꾸 아저씨가 자신이 한때 헛되 공명심을 눈이 멀어 '해수구제'로 영웅 대접 받는 것을 재미나게 여겼다는 점에서 멧돼지와 같은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산 것들 저래 살아가게 하는 일'이 용기 있는 일임을 깨닫고 이후 약실에 돌맹이 하나 못 채어 넣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도라꾸 아저씨가 자신이 한 번 죽었다고 말한 것은 멧돼지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사냥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도라꾸 아저씨는 과거 어미 멧돼지의 텅 빈 눈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리기다소나무, 직박구리, 청솔모 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43~45] (시나리오) 김영현, 「대장금」

이 작품은 어려서 부모를 잃은 장금이 궁궐의 수라간 궁녀로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겪은 끝에 의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화한 드라마 「대장금」의 시나리오 대본이다. 수라간에 들어간 어린 장금은 한 상궁으로부터 음식을 만드는 자의 도리를 배우게 되고, 이를 지키며 중국 사신을 위한 음식을 만들게 된다.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 있던 사신은 장금과 한 상궁이 만든 음식을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나중에 그 음식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의 가치를 잘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43. [출제의도] 각종 상황을 이해한다.

정사는 가는 날까지 자신의 음식을 고집불통인 장금과 장금의 스승인 한 상궁에게 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사는 떠나는 날까지 음식을 준비하라고 할 만큼 장금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한 상궁이 정사의 뜻을 알고 장금에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정사의 음식을 준비한 것은 장금 혼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오겸호는 장금을 불경한 것이라고 하며 정사에게 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정사는 만찬전식을 올린다는 오겸호의 말에 놀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의적 증거에 의해 작품을 감상한다.

정사가 만찬전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자의 도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사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장금이 정사가 음식을 먹는 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며, 이를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정사는 그동안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 소감을 얻었음에도 그런 음식을 꿀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② 장금은 자신이 올린 음식을 먹고 싶은 표정을 짓는 정사를 보며 생선과 산나물 등의 음식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정사의 질문에 먹는 사람

에게 해가 되는 음식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장금은 정사의 건강을 위해 생선과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사는 장금의 음식을 먹을수록 재료 고유의 맛이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금이 만든 음식에서 건강과 맛에 대한 욕망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⑤ 장금은 자신에게 크나큰 위협이 닥쳐도 음식을 하는 자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정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위협을 무릅쓰고 음식을 하는 자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소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시나리오로 작품 제작의 과정을 이해한다.

S#49는 장금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정사가 시식하는 장면, 정사가 시식을 하며 반응하는 장면이 일련의 순서에 따라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사신의 시식' 이후에 '장금의 기대'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음식에 대한 장금의 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장금이라는 인물의 성격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② '다음날'이라는 표지를 통해 이틀 간의 사건을 몽타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불안해하는 오겸호가 담긴 장면이 반복되며 장금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정사의 말을 통해 정사가 사신으로 조선에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